



진안군,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27일 군청 군수실에서 민선 8기를 맞아 보훈기록 권역별방과 지역별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춘성 군수와 관내 7개 보훈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보훈단체 견의사항, 청취와 함께 다양한 보훈 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훈단체장들은 보훈회관 건립 요청과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다양한 숙원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전춘성 군수는 보훈 기록의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며 “여러 견의사항에 대해 각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며 보훈 기록 예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위해 1인당 월 10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진안=우태민기자



장수소방서, 적상초등학교 합동소방훈련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이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적상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무주199안전센터(센터장 공규)는 코로나19의 재유행함에 따라 영상교류로 대체하여 진행 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법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요령 △인명대피 훈련 및 중요문서 비출 방법 △심폐소생술(CPR)교육 등이다.

공규 센터장은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영상교류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소방서, 여름철 야영장 화재안전점검 실시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지난 28일 관내 야영장 6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야영장 안전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캠핑 등 야외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했다. 이에 소방사는 야영장 내 화기 취급으로 인도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관내 야영장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확인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현장 안전컨설팅,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안전교육 등이 있다.

진안소방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관내 야영장 11개소에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야영장 안전점검 및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오정철 서장은 “야영장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대상 안전교육 실시

진안군은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22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22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 5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한 대상자 43명 중 22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각종 사고에 대비해 근로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전달했다.

농촌총력과 김남수 과장은 교육에서 “안전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업을 미루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어린이 동산’ 7200부 지원

농협 전북본부, 도내 초등학교 422개소… 매년 3000만원 상당의 도서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28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서 도내 초등학교 422개소에 어린이 종합 교양지 ‘어린이동산’ 7,200부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장경순 교육혁신과장,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농민신문사가 발행하는 ‘어린이 동산’은 역사·과학·사회·예술 등 다양한 학습 정보와 볼거리 제공하는 어린이 종합교양지로 이번에 지원하는 어린이동산은 오는 8월부터 매월 600부씩 연간 총 7,200부가 도내 전 초등학교에 정기 배부될 예정이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육분야 우수콘텐츠 집지로 선정된 월간 ‘어린이동산’을 2019년부터 매년 3천만 원 상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의 창의력 신장을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앞장지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린이의 독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가 담긴 ‘어린이동산’을 기증



해주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전북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동산’을 읽으면서 풍부한 상상력을 펼치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전했다.

장경민 본부장은 “어린이동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길 희망한다”며 “농협은행은 교육역량 신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봉동읍에 ‘JB희망의 공부방 140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원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봉동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40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봉동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6명의 아동들에게 학습 지도와 문화체험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10년 넘게 사용한 벽지가 아동들의 손때와 얼룩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었고 오래된 책상과 의자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등 환경개선이 시급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도배를 새롭게 하고 블라인드 등을 지원해 밝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고 1인용 책상, 의자, 책장 등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오픈식에는 원주군 유희태 군수, 전북은행 김영민 부행장, 고현상 원주군청지점장, 봉동지역아동센터 이진호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상 기자

김제 진봉면, 함지애 ‘지애의 봄향기’ 대표 미술가루 나눔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육성하는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 소속 진봉면 ‘지애의 봄향기’ 함지애 대표는 관내 사회복지관 이용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미술가루 100봉을 김제시에 기탁하여 28일 김제시청에서 기탁식을 가졌다.

함대표는 귀농 8년차로 김제시 전통기악주연구회 활동을 8년 정도 하는 동안 전통기악과 천연발효식초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꾸준히 배움을 끈을 놓지 않고 무형문화재 54호 이연호 선생님과 한국전통기악주연구소장 박복담 선생님에게 전통주 노하우를 전수받아 실력을 얻어올랐으며 천연발효식초 제작 사업장을 2019년에 시작하여 전통발효식품분야의 다양한 활동으로 2020년 대한민국명주대상 증류주 분야 대상과 2021년 청주부분 대상 등 수차례의 수상경력으로 탄탄한 실력을 쌓아 왔다.

가공사업 창업 이후 이웃과 사회가 배울어준 감사함에 대한 보답으로 매년 계속되는 그녀의 따뜻한 기부 문화는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미덕으로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귀농귀촌



선도농가로서 신규귀농인들에게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안정적이고 빠르게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도 보람을 갖는 귀한 지역사회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지난 27일, 공사 직원 및 도급사업 현장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현장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신업체에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사가 주진 중인 도급공사 및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8월부터 매월 시행하고 있다.

협의 내용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시무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등을 제거하고, 특히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3대 기본수칙인 시원하



고 깨끗한 물 제공, 그늘진 휴식 공간 마련,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충호 지사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사업진에 적극 반영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사회복지관에 사랑의 쌀 전달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는 지난 27일 남원시 노암동 소재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쌀 200kg을 전달했다.

농협의 이날 쌀 전달은 쌀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범농협 쌀소비 촉진행사’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권오정 지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쌀 소비촉진에 적극 앞장서고, 농협이 지역주민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세계라이온스클럽, 사랑나눔 잇따라

‘실천하는 봉사, 실천하는 단합’의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국제세계라이온스클럽 356-C(전북)지구 신세계라이온스클럽(회장 김영한)이 사랑 나눔을 이어갔다.

신세계라이온스클럽은 지난 22일 데일초등학교를 찾아 마스크 8,500개(180만원)를 전달했다.

24일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모의산 등산로에서도 마스크, 생수 나눔을 200여명에게 전달하고 쓰레기 줍기 청소를 깨끗하게 회원들이 하여 등산객들로부터 칭찬이 대단했다.

김영한 회장은 “말보다 실천하는 봉사인으로 지역사회 봉사를 매월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완주군, 강소농 육성 기초과정 수료식 개최

완주군은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소농(強小農)육성 기초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강소농 육성 교육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중·소규모 농업경영체가 경쟁력을 갖춘 경영주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3월부터 7월까지 매주 목요일 총 16회 걸쳐 진행되었으며, 농업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비풀고가역(비芋절감, 품질개선, 고객확대, 가치형상, 역량강화)의 이해 및 실천방법, 농장경영 계획 수립, 내농장 브랜드 기초 세우기, 교육생농장 방문을 통한 현장크로스코칭 등으로 추진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이규진 소장은 “이번 강소농 교육생들이 교육기간 동안에 높은 열의를 갖고 참여하였고, 교육내용이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농업 경영 능력과 농장 운영 전략 등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강소농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교육생들이 지역농업사회에 새로운 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원주=이중복 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송영진(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장인상: 빈소: 부안 해생병원례식장 VIP 2호실, 발안: 30일(토) 오전 7시30분, 장지: 효자죽묘관, 연락처: 010-5680-6646
/진안=우태민 기자